정신-기술-예술 '여왕의 힘'

완벽 연기·가산점으로 세계新 … 연아시대 활짝

그랑프리 시리즈 6연패 … 동계올림픽 金 유력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두 개 대회 연속 역대 최고점 경신이라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앞세워 2009-2010 시즌 첫 대회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18일(한국시간) 새벽 프랑스 파리 '팔레 옴니스포르 드 파리-베르시' 빙상장에서 치러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총점 210.03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타고난 강심장 '실수쯤이야'**=김연아의 강점은 냉정함이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부담과 점수에 대한 압박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심리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이 때문에 김연아를 표현할 때 '강심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김연아는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는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다 트리플 살코 점프에서 트리플 살코 점프를 뛰려다 한 바퀴만 돌고 착지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고 연기를 이어가면서 사상 첫 200점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이끌어냈다.

김연아는 새 시즌을 맞아 콤비네이션 점프였던 트리플 플립 점프를 단독으로 실행하고, 오히려 더 고난도의 트리플 러츠-트리플 플립 콤비네이션 점프를 프로그램에 넣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뛰어난 기술 '쌓이는 가산점'**=김연아가 연기 요소를 이어 갈 때마다 가산점이 쏟아졌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치는 동안 수행평가점수(GOE·가산점)에서 단 한 차례의 감점도 없었다.

특히 김연아가 이번 시즌 필살기로 내세운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점)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2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의 더블 악셀(기본점 3.5점)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받았던 게 최저였을 만큼 김연아의 점프 기술은 심판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김연아는 이번 대회 참가자 가운데 유일하게 트리플-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를 뛰었을 정도로 기술 수준에서 다른 선수들을 한 단계 앞섰다.

◇**흔들림 없는 연기 '지치지 않는 체력'**=부상 없는 완벽한 신체와 지치지 않는 체력 역시 김연아의 우승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김연아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면서 허리부상과 고관절 부상에 힘겨운 시즌을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부상에서 벗어나면서 여자 싱글 사상 처음으로 200점대 돌파에 성공한 김연아는 이번 시즌 역시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10점대 돌파라는 기록행진을 이어갔다.

김연아는 "힘든 체력운동보다 근육의 밸런스를 유지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김연아 일문일답

"210.03점 봤을때 기분 멍 했다"

"210점을 봤을 때 너무 놀라고 기분이 멍했어요."

김연아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옴니스포르 드 파리-베르시' 빙상장에서 치러진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며 가볍게 우승했다.

다음은 김연아와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 스리턴을 하는 순간 스케이트 날에 뭔가 걸렸는지 잠시 휘청하면서 점프를 뛰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고 첫 대회부터 최고점을 얻어 너무 기분이 좋다.

-최고점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프리스케이팅 연기만 봤을 때 수행평가점수(GOE)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전광판에서 210점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놀랐다. 첫 대회부터 최고점을 얻어서 기분이 잠시 멍했다.

-프리스케이팅 연기할 때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나.

▲최근 몇 년 동안 스토리있는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한 캐릭터 없이 클래식한 음악 자체를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프로그램이어서 표현하기 쉬웠다.

-동계올림픽을 앞둔 느낌은.

▲이번 대회가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처음 치르는 경기여서 많은 사람이 주목해 걱정이 앞섰지만 첫 대회치고는 차분하게 경기를 마친 것 같다. 올림픽 시즌이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다.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나머지 대회에서도 차분하게 치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손꼽았던 대회라서 긴장도 된다. 최근 두 시즌 연속 좋은 결과를 얻어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 여름 전지훈련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때도 점프는 물론 스피드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어떤 특정한 기술을 더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 프로그램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자신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피겨는 솔직히 기록경기는 아니다. 한계를 뛰어넘기보다는 매 경기에서 내가 가진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연합뉴스